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 및 부의 양육참여와 부모의 권위구조가 성인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al Power-Prestige in Childhood on Adul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이 주 리*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Lee, Ju-Li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al power-prestige in childhood on adul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Participants were 168 women. Stepwis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father and mother's rejection in childhood were association with adul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owever, both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al power-prestige in childhood had no effects on adul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부모의 수용-거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아버지 참여(father involvement), 부모의 권위구조(parental power-prestige), 심리적 부적응(psychological maladjustment)

I. 서 론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그 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녀는 건강하게 발달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면 아동은 공격성, 낮은 자존감, 문제 행동, 정서적인 불안, 부정적인 세계관 등 여러 가지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김재엽·정윤경, 2007; 김재철·최지영, 2011; 손화희·윤종희, 1990; Dwairy, 2010; Feinberg et al., 2000; Florsheim et al., 1996; Khaleque, 2007; Khaleque & Rohner, 2002; Kim, 2008; Kim et al., 2006; Kroupa, 1988; Rohner, 1975, 1986; Rohner & Khale-

que, 2005; Simmons et al., 1989). 특히, Rohner 등(1980), Rohner 등(1980), Veneziano와 Rohner(1998)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의 27%~46% 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Cain, & McCubbin, 2006).

이와 같은 부모의 수용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동기 발달 뿐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Bowlby(1980)의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은 이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동은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내적인 표상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수용된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이 형성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며 잘 적응하지만, 부모로부터 거부된 아동들은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부정적인 표상이 형성되어 일생을 통해 심리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었다고 회고한 성인들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적대감이나 공격성은 낮았다(Parmar et al., 2008; Rohner, 2008; Rohner et al., 2008; Rohner et al., 2008; Varan et al., 2008). 심지어 아동기 원부모의 온정과 돌봄은 성인기의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정은선 · 조한익, 2009; Kazarian et al., 2010)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데, 과거에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주로 강조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김은경 · 유가효, 2002; 김희화, 2005; 이지혜 · 김정옥, 2009; 장영애 · 이영자, 2008; Flouri, 2005, 2007; Veneziano & Rohner, 1998), 여전히 어머니-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참여 못지않게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아동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김은경 · 유가효,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수용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Veneziano & Rohner, 1998). Flouri(2007)는 다른 가족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훈육 및 교육적 책임감, 학교 생활에 대한 격려, 칭찬과 애정, 소질 개발 및 미래에 대한 관심 등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정서적 증상, 행동 문제 등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와 같은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을 예방하는 역할 뿐 아니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성인이 된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애정적인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질 높은 긍정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Bowlby(1980)의 내적 실행 모델에 근거해 본다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이 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 내 권력 구조의 형상도 다양해졌다. 현대 사회에

서 남녀 평등 사상의 도입에 따라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증가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제적 능력까지 향상시켰다. 그에 따라 과거 대다수의 가정 내에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가부장적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어머니의 권력이 대등하게 상승하였다. 심지어 가정에 따라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권력이 더 우세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처럼 가족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력 양상이 이전보다 다양하게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Rohner(2010)는 어느 쪽의 권력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 행동적 발달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권위구조(parental powerprestige)개념을 타당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권력(power)은 타인의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며, 지위(prestige)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승인, 존중, 존경 등을 의미한다. 그는 가족과 같은 매우 작은 집단 내에서 이러한 권력과 지위는 강하게 연관이 되며, 그것들은 집단 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하였다. Socitey for Cross Cultural Research(2010)는 이 변인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수용-거부 수준 뿐 아니라, 아버지 양육참여와 가족 내 부모의 권위구조 양상을 함께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아동기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아버지 참여, 그리고 가족 내 부모의 권위구조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Rohner(2010)와 Socitey for Cross Cultural Research(2010)의 제안에 따라,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가정 내 부와 모의 권력-명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각각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기 시절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정 내 부와 모의 권력-명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는 각각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의 아버지 양육참여와 가족 내 부와 모의 권위구조는 각각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제주도에서 성인남녀를 임의추출방식으로 22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으나 이중 12부는 수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모두 208명의 성인 남녀(남자 40명, 여자 168명)였다. 그러나, 표본이 여성에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 참여자만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여성 16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령은 30대 29.3%, 40대 43.7%, 50대 11.4% 등이었으며, 평균 42.22세(SD : 7.50)였다. 연구대상자의 약 90%는 기혼이었다. 또한, 46.7%는 정규직, 20.6%는 비정규직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1.2%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23.8%, 대졸 16.1%였다(<표 1> 참조).

2. 측정 도구

1)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는 Rohner & Khaleque (2005)가 개발한 표준형 부모 수용-거부 및 통제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 Child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3문항으로 양육태도에 대하여 '수용-거부(60문항)'와 '통제(13문항)'라는 두 가지 차원을 측정한다. 수용-거부 척도는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임, 그리고 미분화된 거부 등 4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용 PARQ(Short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기 시절 아버지 수용-거부 양육태도, 어머니 수용-거부 양육태도 각각에 대하여 성인이 회고하는 형식으로 측정된다. 역시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무관심/방임, 일반적인 거부 등 4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short 버전에서는 통제 차원은 측정되지 않는다. 문항의 예는 온정/애정(나의 좋은 점을 말씀하셨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아버지/어머니께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아버지/어머니께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하셨다 등), 적대감/공격성(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나를 때리셨다, 화가 나시면 심한 벌을 주셨다,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셨다 등), 무관심/방임(나한테 신경을 안 쓰셨다, 너무 바빠셔서 내가 여쭙보는 것에 대답해 줄 여유가 없으셨다, 아버지/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경을 안 써주셨다 등), 일반적인 거부(나를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하셨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버전 .936, 어머니 버전 .933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Rohner & Khaleque(2005)가 개발하여 이미 검증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2)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는 Rohner(2010)의 아버지 양육참여척도(Father Involvement Scale: FIS)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0 문항으로서 자녀의 발달과정에 아버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여했는가를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 지적/두뇌 발달, 정서 발달, 여가활동/취미/놀이, 돌봐주심,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거나 활동을 같이 하심, 조언해 주심, 학교생활/숙제, 친구 관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구성되었다. 아동기 시절의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지적/두뇌 발달 1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8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 역시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3) 가족 내 부모의 권위구조

부모의 권위구조는 Rohner(2010)의 권력-명성(Power-Prestige: 3PQ)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이	%	교육수준	%	고용상태	%
20대	4.2	고졸 이하	1.8	정규직	46.7
30대	29.3	고졸	51.2	비정규직	20.6
40대	43.7	전문대졸	23.8	무직	15.2
50대	11.4	대졸	16.1	기타	17.6
60대	0.6	대학원	7.1		

아버지 중 누구의 권력과 명성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한다. 권력 5문항과 (예: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보통 어느 분의 의견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믿음이 더 가는 분은 보통 어느 분이 셧습니까?) 명성 5문항 (예: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어느 분 을 더 존경했습니까? 어느 분의 위신이 더 높다고 느끼셨습니까?) 등 2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 로서,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권력과 명성이 더 높은 것이다. 아동기 시절의 부모의 권력-명성을 회고하 는 형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5 로 나타났다. 본 척도 역시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척 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 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은 Rohner와 Khaleque(2005) 성인용 심리 적 부적응 척도(Adult-Psychological Adjustment Questionnaire: Adult-PAQ)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7개의 하위 척도 로 구성된다: 1) 적대감/공격성 (예: 나는 화가 날 때 성질을 억제하기 어렵다, 나는 빈정대기를 좋아한다) 2) 의존성 (예: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이 나를 가엾게 여겨주는 것을 좋아한 다, 나는 내가 다쳤거나 아플 때 친구들이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좋아한다. 3) 부정적 자존감 (예: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다, 나는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부정적 자기 적절성(Negative Self-Adequacy) (예: 나는 내가 여러 면에서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우울하다), 5) 정서적 무반응(Emotional Unresponsiveness) (예: 나는 가깝고 친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6) 정서적 불안정(Emotional Instability) (예: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당황한다, 나는 하는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마음의 평정을 쉽게 잃는다) 7) 부정적 세계관 (예: 나는 세상이 위협적이고 위험한 곳이

라고 본다, 나는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걱정스럽고 불안정하 라고 본다). 7개의 하위 척도는 각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3문항이 된다.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적으로 부적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 키는 1문항(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노를 느낀다)을 제외한 총 62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최종적인 Cronbach's α 는 .870 이었다. 본 척도 역시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 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3. 분석 방법

변인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 였으며, 아동기 시절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아버 지 양육참여, 가정 내 부와 모의 권력-명성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5.0을 통해 수행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 를 통해 제시하였다.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예비분석으로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아동기 아버지, 어머니의 거부 수준 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아동 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간에는 부적 상 관이 나타났다(모두 $p < .01$). 그러나, 아동기 가정 내 부모의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최소값-최대값
아버지 PARQ (수용-거부)	1.89(.52)	1-4
어머니 PARQ (수용-거부)	1.76(.51)	1-4
FIS (아버지 양육참여)	2.68(.65)	1-4
3PQ (권력-명성)	2.99(1.16)	1-5
PAQ (심리적 부적응)	2.15(.30)	1-4

주. PARQ: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 FIS: Father Involvement Scale / 3PQ: Power-Prestige / PAQ: Psychological Adjustment Questionnaire

<표 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1.아동기 아버지 수용-거부	2.아동기 어머니 수용-거부	3.아동기 아버지 참여	4.아동기 부모의 권위구조(모 vs 부)	5.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1	1				
2	.688**	1			
3	-.610**	-.457**	1		
4	.076	.056	.072	1	
5	.478**	.437**	-.293**	-.066	1

**p<.01

<표 4>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F	R ²
PAQ	PARQ-아버지	.487***	47.661***	.238
	PARQ-아버지	.340**	26.947***	.262
	PARQ-어머니	.214*		

*p<.05, **p<.01, ***p<.001

권력-명성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모든 주요 변인들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및 아버지 양육참여와 가족 내 부와 모의 권위구조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가정 내 부와 모의 권력-명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동기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하였다. 즉,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부적이었을수록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각각 β=.340, p<.01, β=.214, p<.05). 이 중 아동기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비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가족 내 부와 모의 권위구조는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에서 제외되어 산출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그리고 가정 내 부와 모의 권위구조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는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인들은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었다고 회고할수록 낮은 자존감, 정서적인 불안, 부정적인 세계관 등 현재의 심리적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었다고 기억할수록 성인들은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등 심리적 적응 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여러 나라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정은선·조한익, 2009; Kazarian et al., 2010; Parmar et al., 2008; Rohner, 2008; Rohner et al., 2008; Rohner et al., 2008; Varan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일생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Bowlby(1980)의 내적실행모델 개념을 지지한다. 부모로부터 거부되어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들은 그 당시에도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을 겪게 되지만(김재엽·정운경, 2007; 김재철·최지영, 2011; 손화희·윤종희, 1990; Dwairy, 2010; Feinberg et al., 2000; Florsheim et al., 1996; Khaleque, 2007;

Khaleque & Rohner, 2002; Kim, 2008; Kim et al., 2006; Kroupa, 1988; Rohner, 1975, 1986; Rohner & Khaleque, 2005; Simmons et al., 1989), 그러한 부모의 영향은 그 뿐 아니라 이처럼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유의한 만큼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동기 부와 모의 양육태도 중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 보다 아버지 인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성인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더욱 연관이 되었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시대에서 한국 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정된 역할과 관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평균 대략 42세(표준편차 7.79년)였다. 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1960년대-1980년대에는 가정에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다. 사실상 자녀의 주 양육자는 거의 대부분 어머니였으며, 그만큼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러므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깊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었으나, 아버지와는 관계에서는 그러한 친밀감이 형성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친밀감과 애정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상쇄될 수 있었지만, 친숙하지 않은 아버지와는 관계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할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었을 경우 관계의 악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궁극적으로 아동기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개인의 인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세계관, 정서적인 불안 등 여러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가정 내 부와 모의 권위구조는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정 내 부모의 권력-명성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가정 내 부와 모의 권력-명성과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볼 것이 권장된다.

다만, 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동기 부와 모의 수용-거

부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예비분석으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을 때 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간 유의한 관련(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은 낮아짐)이 나타났지만, 회귀분석에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는 그 유의한 상관성이 사라진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다른 변인들의 통제 없이 순수하게 두 변인(아동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상관성은 유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참여 이외에 부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가 동시에 예측변인들로 함께 설정되었을 때에는 부와 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부모의 권위구조가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3가지 변인들은 모두 성인들인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아동기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는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따라가는 종단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서울과 제주도지역에서만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견고하게 지지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변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유가효(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놀이치료 연구**, 5(1), 33-43.
- 김재엽·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철·최지영(2011). 부모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한국아동학회**, 11(1), 58-72.

- 이지혜 · 김정옥(200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61-89.
- 장영애 · 이영자(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정은선 · 조한익(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 Dwairy, M.(2010).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 Fourth cross-cultur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 30-35.
- Feinberg, M. E., Howe, G. W., Reiss, D., & Heitherington, E. M.(2000).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4), 531-555.
- Florsheim, P., Tolan, P., & Gorman-Smith, D.(1996). Family processes and risk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222-1230.
- Flouri, E.(2005). Father's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Indian and White British secondary school age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0(1), 32-39.
- Flouri, E.(2007). Fathering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ole of fathers' involvement, residence and biology statu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4(2), 152-161.
- Kazarian, S. S., Moghnie, L., & Martin, R. A.(2010).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rejection in childhood as predictors of humor styles and subjective happines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6(3), 71-93.
- Khaleque, A.(2007).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yo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ternational Society for Interpersonal Acceptance and Rejection*, 1(1), 2-4.
- Khaleque, A., & Rohner, R. P.(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 Kim, E.(2008). Psychological adjustment in you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nd parental warm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1(4), 195-201.
- Kim, E., Cain, K., & McCubbin, M.(2006). Maternal paternal parenting, acculturation, and young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3), 112-129.
- Kroupa, S.(1988).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female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3(89), 171-185.
- Parmar, P., Ibrahim, M., & Rohner, R. P.(2008). Relations among perceived spouse acceptance, remembered parental acceptance in childhood,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adults in Kuwait. *Cross-Cultural Research*, 42(1), 67-76.
- Rohner, R. P.(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RAF Press.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Rohner, R. P.(2008).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tudies of intimate adult relationships. *Cross-Cultural Research*, 42(1), 5-12.
- Rohner, R. O.(2010). *Parents' Power and Prestige Questionnaire (3PQ) (in English, Korean, Spanish, Turkish, Urdu)*. http://www.familystudies.uconn.edu/contact/faculty/pdf/Rohner_SelectedPublications_2011.pdf
- Rohner, R. P., Hahn, B., & Rohner, E. C.(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Rohner, R. P. & Khaleque, A(Eds.).(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 P., Melendez, T., & Kraimer-Rickaby, L.(2008). Intimate partn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in childhood,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merican adults in ongoing attachment relationships. *Cross-Cultural Research*, 42(1), 13-22.
- Rohner, P. R., Roll, S., & Rohner, E. C.(1980).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among Mexican and Americ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2), 23-28.

- Rohner, R. P., Uddin, M. K., Shamsunnaher, M., & Khaleque, A.(2008). Intimate partn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in childhood,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Japanese adults. *Cross-Cultural Research, 42*(1), 87-97.
- Simmons, R., Robertson, J., & Downs, W.(1989). The nature of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reje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3), 297-310.
- Society for Cross Cultural Research(2010). *October 2010 News Letter*. <http://www.sccr.org/newsletter/October2010Newsletter.pdf>
- Varan, A., Rohner, R. P., & Eryuksel, G.(2008). Intimate partn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in childhood,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Turkish adults in ongoing attachment relationships. *Cross-Cultural Research, 42*(1), 46-56.
- Veneziano, R. A., & Rohner, R. P.(1998). Perceived paternal acceptance, paternal involvement, and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rural,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35-343.

- 접수일 : 2011년 07월 11일
- 심사일 : 2011년 08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4일